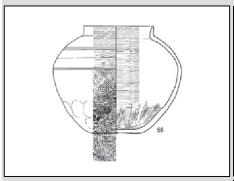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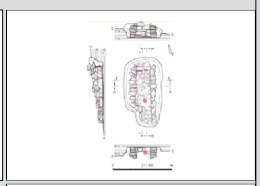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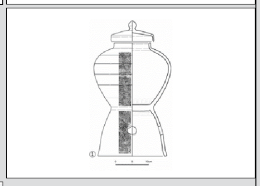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26.51.75


백제 웅진 ·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 집단의 양상과 중앙과의 관계

Local Groups in the Yesan Region during the Ungjin and Sabi Periods of Baekje: Relations with the Central Authority

황보 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Ⅰ. 머리말

Ⅱ. 예산 서부지역의 백제유적 분포 양상

Ⅲ. 웅진기 지역 집단의 등장과 성장

Ⅳ. 사비기 고분에 나타난 지역 집단과 중앙의 관계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백제 사비기 지방의 묘제는 중앙의 묘제에 해당하는 횡혈식석실묘로 대체되며, 규격화와 정형화 과정을 겪는다. 이때 중앙에서 확인되는 묘제 형식을 얼마나 충실히 수용했는가는 백제 중앙과 각 지역 집단 간 관계의 밀접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 확인되는 여러 유형의 횡혈식석실의 존재 양상을 통해 해당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지역 집단은 웅진기부터 그 등장이 확인된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웅진기 귀족의 무덤 형식에 해당하는 금학동식 석실이 축조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당 횡혈식석실의 피장자 집단이 백제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 집단으로서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웅진 천도 이후 충청남도 일대의 중요도가 상승한 것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의 석축 고분 축조는 사비기까지 이어져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된다. 동시에 목리 · 신리유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교한 능산리식 석실에 해당하는 석곡리 2호분이 축조된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토착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장속이 확인되는 반면 석곡리유적은 고분군 조영에 있어 연속성이 보이지 않으며, 고분의 형식에서 중앙의 묘제와의 큰 유사성이 보인다.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 집단은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구조를 수용하면서도, 현지의 매장 전통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적 인물, 즉 현지 출신으로서 지방관에 협력하여 지방지배에 기여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석곡리유적의 피장자가 속한 집단은 백제 중앙과 유사한, 규격화된 석실을 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앙에 의해 파견된 관료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예산 서부지역 내에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갖는 집단이 동시기에 지배세력으로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백제 사비기 지방지배에 있어 복합적인 통치 방식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백제, 사비기, 예산, 지방지배, 횡혈식석실, 능산리식 석실

Ⅰ. 머리말

백제의 지방지배가 관철되어 가는 과정은 지방사회가 영위하던 장묘문화가 중앙의 묘제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웅진기에 왕릉을 위시한 지배층의 주 묘제로 자리 잡은 횡혈식석실묘는 공주와 금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지방으로 확산된다. 사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백제 지방 전역에서 보편적인 묘제가 된다. 이때, 백제 중앙의 횡혈식석실묘를 구성하는 요소의 수용 정도 차이는 백제 중앙세력과 각 지역 집단 간 관계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고에서는 백제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백제의 지방지배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2018년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에서 백제 중앙에 비견될 정도로 정교하게 축조된 능산리식 석실묘가 발견되었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석실 내부에서는 금동이식, 토기와 같은 부장품과 더불어 목관재와 인골이 함께 발견되어 백제 사비기 묘장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서현주 2020; 김동균 2022; 강원표 2021; 이나은 2022). 이처럼 가공도가 매우 높은 석실의 경우 지방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산지역에 이러한 석실이 축조된 역사적 맥락에 대해 설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서정석 2023; 강연준 2024).

예산 서부지역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방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내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변 유적과의 관계를 살펴 지역 속에서 석실 피장자의 정치 · 사회적 위치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석곡리유적의 인근에는 마찬가지로 횡혈식석실묘로 구성된 예산 사리고분군이 존재하며, 남쪽으로 약 7km 거리에는 대규모 고분군인 예산 목리 · 신리유적이 자리한다. 해당 유적들은 같은 시기에 조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분 조영 양상과 墓葬制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시 각 유적의 고분 피장자가 속한 집단이 지역 내에서 갖는 사회적 위계, 백제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에 차이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고분 조영 양상은 백제 사비기 지방 지배 방식의 변화라는 배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일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백제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의 정치적 위상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배력 강화와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백제가 두 차례의 천도를 겪는 동안 백제 각 지방의 역할과

중요도도 함께 변화했다. 충남 지역은 왕도와 지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며 그 위상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석곡리 고분군을 포함한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고분군 분석을 통해 지역 집단의 동향을 밝히고, 각 집단이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백제의 통치 방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을 백제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의 위상과 연관지어 해석해보고자 한다.

Ⅱ. 예산 서부지역의 백제유적 분포 양상

예산군의 서부와 동부는 현 행정구역상 예산군에 속해 있지만 과거에는 서로 다른 권역으로 인식되었다. 과거 예산군 일대에는 해수가 깊숙이 만입하였으며, 강폭이 현재보다 넓어 예산군 서부와 동부 사이에 자연 경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공간적 범위는 예산군의 서부, 가야산의 동편으로, 과거 馬尸山郡, 今勿縣의 영역이다. 현 행정구역상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삽교읍에 해당한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는 백제 당시의 분묘군, 관방유적, 불교유적 등이 확인되는데, 유적의 종류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웅진기를 기점으로 생활유적과 분묘군이 조영되기 시작하여 사비기까지 이어진다. 사비기가 되면 불교유적이 축조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일대의 시기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적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은 예산군 삽교읍에 위치한 대규모 유적이다.[1] 백제 웅진기에서 사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된 유적으로 저장수혈 103기, 석축고분 213기, 건물지 2동, 주거지 7기, 토광묘 1기, 옹관묘 8기 등이 조사되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목리 · 신리 유적 내 3-2지점, 3-4지점, 3-5지점, 추가고분조사지역에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석축고분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백제 고분은 3-2지점에서 106기, 3-4지점에서 93기, 추가고분 조사지역에서 14기로 총 213

1) 홍성 석택리유적이 위치한 홍북읍과 예산 목리 · 신리유적이 위치한 삽교읍은 현 행정구역상 예산군과 홍성군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남북으로 접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 서부지역 인근에서 확인되는 원삼국~백제 한성기 유적으로 홍성 석택리유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택리유적은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환호, 주거지, 분묘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두 유적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양 유적에 존재했던 세력 간의 연관성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기가 확인되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 훼손되지 않아 석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고분 123기 가운데 46기가 횡혈식석실묘이다.

사비기가 되면 목리 · 신리유적 내에 사비기 형식을 갖춘 고분들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유적 내 군집 가운데 3-4 E지점의 고분이 그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3-4 E지점의 고분들은 유적에서 규모가 큰 고분들에 속하며, 대형 판석으로 벽석을 축조한 고분이 주를 이룬다. 이 중 개석이 잔존하는 184호분은 사비기 석실의 구조적 특징인 단면 육각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같은 시기에 목리 · 신리유적에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7km 지점에 위치한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에서도 사비기 형식의 횡혈식석실묘가 조영된다. 석곡리유적은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옹관묘 1기, 백제 석실묘 6기, 백제 옹관묘 6기 등 총 2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곡리유적에서 확인된 정교한 능산리식 석실은 서산, 아산 등 인근 지역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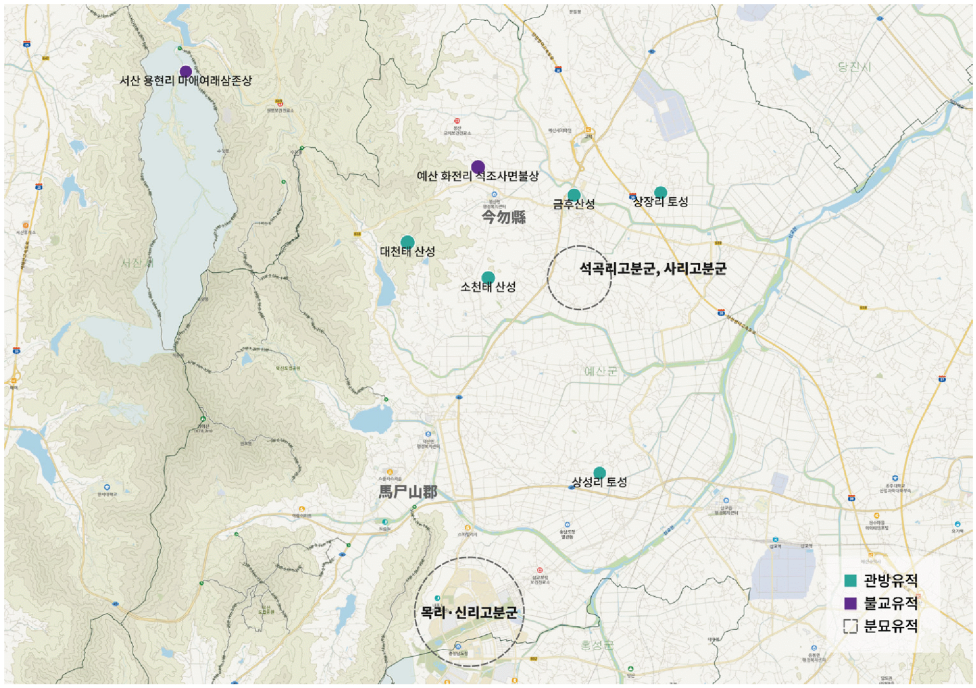
사리유적은 석곡리유적과 마찬가지로 고덕면에 위치한다. 유적은 3개의 지점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는데, 백제 석실묘가 1지점에서 1기, 2지점에서 2기, 3지점에서 1기 조사되었다(동방문화재연구원 2021). 이 중 1지점과 2지점은 약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3지점은 1 · 2지점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데, 오히려 석곡리고분군과 지근거리에 있다.

각 유적의 위치 관계와 고분군 내 조영 양상은 발굴조사 범위를 감안하여 볼 필요가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은 대규모 고분군으로 고분이 확인된 조사범위가 석곡리유적, 사리유적에 비해 넓다. 3-2지점과 추가고분조사지역이 직선거리 약 8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3-2지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3-4 J지점이 직선거리 1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은 발굴조사 과정과 별개로 동일한 권역 내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의 고분 사이에는 시기적 유사성이 보이며, 조영 주체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산 서부지역의 불교유적으로는 봉산면 화전리에 위치한 석조사면석불이 있으며, 가야산에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있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석불은 착의법에 대한 불교미술사적 분석 결과 조성 시기가 6세기 후반(정은우 2005: 231), 혹은 6세기 말~7세기 초로 추정되었다(소현숙 2019: 88~89). 한편 석불이 대중 교

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6세기 중반 축조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정재윤 2007: 50). 화전리 사면석불은 석곡리고분군 · 사리고분군의 인근에 위치한다는 점, 고분군과 불상의 조성시기가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산 서부지역에는 10개소 이상의 산성이 분포하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축조 주체와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상성리 토성, 대천태 산성, 소천태 산성, 금후산성, 상장리 토성에서는 정밀 지표조사 과정에서 백제 유물이 확인되어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 바 있다(최병화 2017: 42; 가경고고학연구소 2017: 211; 심정보 외 1984: 243~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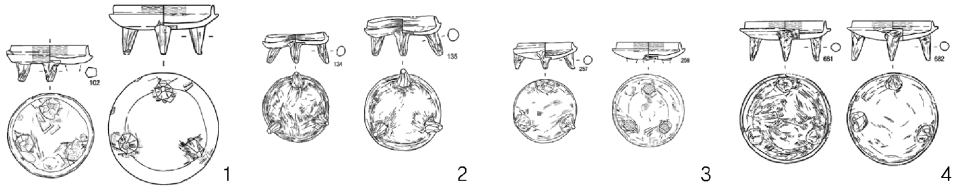
[그림 1] 예산 서부지역 유적분포도

Ⅲ. 웅진기 지역 집단의 등장과 성장

예산 서부지역에서는 한성기에 대규모 지역 집단의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거유적이나 분묘유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인근 지역인 서산 · 홍성 등지에서

백제 한성기에 조성된 대규모 분묘유적 혹은 취락유적이 확인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2] 예산 서부 지역 세력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웅진기부터이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 저장수혈군과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예산 서부 지역 일대에 한성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던 분묘군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횡혈식석실묘가 웅진기 백제 지배층의 지배적 묘제로 정착된 이후, 후기로 갈수록 점차 지방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지역에 석축 고분을 조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고분이 웅진기에 조영되기 시작하였음은 부장된 토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호분, 31호분, 62호분 출토 삼족기는 다리가 八자형으로 벌어져 있다. 특히 24호분, 62호분 출토 삼족기는 다리 끝이 외반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는 웅진기에 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土田純子 2014: 242~243). 또한 전체적으로 배신부가 비교적 깊고 평평하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어 웅진기 형식임을 알 수 있다. 24호분의 경우 족부가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지만 길이가 비교적 길어, 웅진기 중에서도 사비기에 가까운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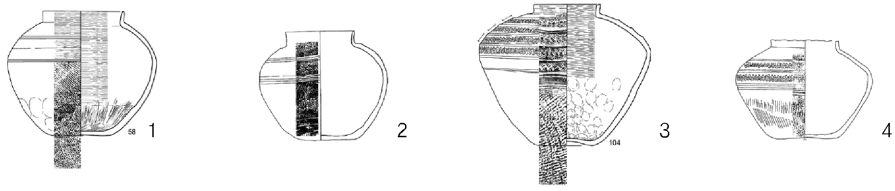
[그림 2] 목리 · 신리 고분 출토 삼족기 형태 비교
(1. 목리 · 신리 24호분, 2. 목리 · 신리 31호분, 3. 목리 · 신리 62호분, 4. 목리 · 신리 150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일부 석축 고분에서는 직구단경호가 출토되었다. 20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회청색 경질 소성의 토기이다. 견부와 동최대경의 가운데에 횡침선을 2조 돌려 구획하였으며, 동체 중하단부터 저부까지 타날문이 확인된다. 24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회청색 경질 소성의 토기이다. 동최대경은 동체의 중상부에 있으며, 구연 아래에서 동

2) 서산 부장리유적에서는 백제 주거지 44기, 수혈유구 15기, 분구묘 13기, 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으며, 분구묘에서 위세품으로 보이는 금동관모와 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이를 통해 백제 중앙으로부터 위세품을 사여받을 정도로 유력한 세력이 4~5세기 이 일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홍성 신금성유적은 5세기 전반 백제에 의해 초축된 성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이혁희 2017). 또한 서산 언암리 낫머리유적에서는 백제 주거지 62기, 분묘 56기가 발견되어 비교적 대규모 집단이 이 일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최대경 바로 아래까지 횡침선을 돌려 구획하여 4단에 걸쳐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중하단부에서 저부 바닥까지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직구단경호는 저부 형태가 원저, 말각평저, 평저 순으로 변화하는데, 평저는 사비기에 나타나는 형태이다(土田純子 2014: 217). 20호분과 24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모두 말각평저 형태를 띠고 있다. 20호분 출토 직구단경호는 음각으로 된 횡선대가 동최대경을 기준으로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사비기 이전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속성에 해당한다. 24호분 출토품은 2조의 횡침선 사이에 2조의 파상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사비기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문양이다(土田純子 2014: 219). [그림 3]에서 웅진기로 편년되는 익산 웅포리 출토 직구단경호, 공주 산의리 출토 직구단경호와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목리 · 신리 고분 출토 직구단경호 형태 비교
(1. 목리 · 신리 20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2. 익산 웅포리 93-13호분(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5), 3. 목리 · 신리 24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4. 공주 산의리유적 40호분(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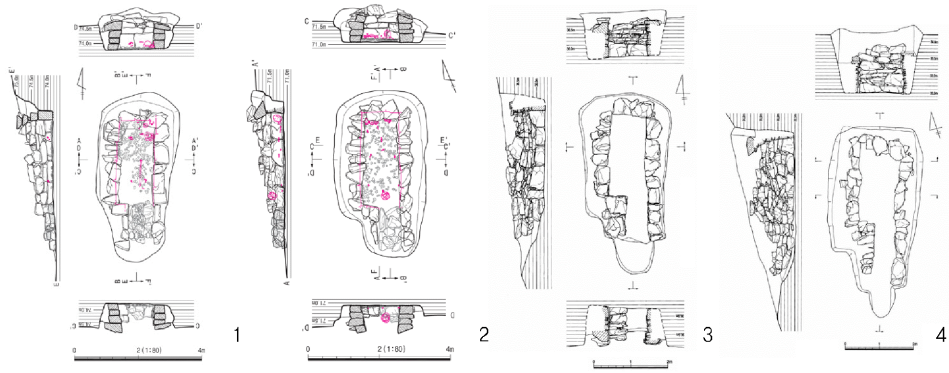
부장 토기 분석을 통해 웅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 고분 가운데 20호분과 24호분은 석실의 형태 면에서 금학동식 석실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할석조에 평면 장방형, 변형의 궁륭상 형식인 금학동식 석실은 귀족 무덤으로, 하남 감일동 석실묘와 같이 한성기 중앙에서 유행한 석실묘와 유사한 형식이다(김낙중 2021a: 375). 축조집단은 하남 감일동 · 판교동의 판교형석실 축조집단과 계통적으로 상호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박신영 · 성정용 2020: 88).[3)]

목리 · 신리유적 20호분, 24호분은 서천 추동리유적의 석실묘와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한다. [그림 4]에 제시된 서천 추동리의 횡혈식석실묘는 금학동식 석실로부터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축 단면은 아치형, 단축 단면은 사다리꼴인 변형의 궁륭상 형태이다(김낙중 2021a: 459). 조영 시기는 6세기 전반~중반으로 편년되었다.

3) 금학동식 석실은 왕과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송산리식 석실과는 구별되는 형식이다. 웅진기 왕릉의 석실 평면은 방형과 장방형이 대다수이지만, 금학동 고분군의 석실은 세장방형이다(오동선 2024: 71~72).

A-16호분과 A-24호분을 포함한 변형궁륭식, 할석조, 우편재 연도 석실들은 석실의 장단비가 1.47~2.2로 상당히 세장한 편으로, 지방 석실로서 공주 · 부여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천 추동리 유적은 웅진기 후반부터 사비기 전반에 걸쳐 발전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백제 중앙권력이 개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되었다(권오영 2007: 264~265). 서천 추동리가 위치한 금강 하구 일대의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 당시부터 중앙의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결과로 해석되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433~435).

목리 · 신리유적의 두 고분 모두 평면 장방형에 우편재 연도를 갖고 있으며, 현문은 문틀구조가 없는 개구식이다. 네 벽은 할석을 쌓아 축조하였다. 양 측벽에 후벽을 기대어 쌓는 축조 기법이 확인된다. 이는 웅진기에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되는 석실 형태이다. 이때, 할석으로 축조한 벽면 1단은 비교적 큰 판석 형태의 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비기가 되면 석실 벽석의 판석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비기에 가까운 웅진기 후반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예산 목리 · 신리, 서천 추동리 횡혈식석실 비교
(1. 목리 · 신리 20호분, 2. 목리 · 신리 24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3. 서천 추동리 A-16호분, 4. 서천 추동리 A-24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장단비는 20호분이 2.17, 24호분은 2.47로 세장한 편이라는 점, 24호분의 경우 고분에서 출토된 웅진기 삼족기의 형태가 한성기보다 사비기에 가깝다는 점에서도 웅진기 후반의 석실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리 · 신리유적 석실의 피장자는 웅진기 후반부터 백제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 집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비기까지 이어져 대규모 고분군을 조성한다.

웅진기 금학동식 석실 축조를 계기로 횡혈식석실묘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는 양상은 남원 초촌리고분군과 정읍 은선리고분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정읍 은선리고분군의 경우 정읍 영원면 일원에 270기의 고분이 대체로 반경 2km 내에 분포하고 있다. 주로 백제 사비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분은 웅진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후벽이 안쪽으로 조금씩 조여드는 아치식 천장구조로 축조된 횡혈식석실묘가 확인되어 공주 금학동 · 웅진동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와의 유사성을 상정할 수 있다(전주대학교박물관 2024: 44). 남원 초촌리고분군의 경우 약 200기 이상의 고분으로 구성된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되었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이 또한 웅진기 후반에 조영되기 시작하여 사비기까지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웅진기 후반, 백제의 지방지배 재편에 따라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역에 중앙의 석실 형식이 이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중앙의 무덤 형식 가운데에서도 귀족의 무덤 형식에 해당하는 금학동식 석실 형식이 백제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금학동식 석실의 축조를 시작으로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지역 세력의 성장이 확인된다는 점을 통해 지역 지배와 지방 재편의 과정에 중앙 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4)]

예산 서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지역 세력의 성장은 웅진기 당시 백제의 정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에서 웅진으로의 천도로 인해 충청남도 일대는 백제 중앙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로 인해 백제 중앙에 있어 지역의 중요도는 상승했을 것이다. 또한 웅진~사비기에 걸친 대중교역의 변화도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5)]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예산 서부지역 일대의 중요도가 상승하였고, 웅진기 이후 지역 집단이 백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사비기에 들어서면 정읍 은선리 고분군의 경우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남원 초촌리의 경우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김낙중 2018: 64). 이는 웅진기 후반 금학동식 석실 축조를 계기로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앙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판석조 단면육각형의 능산리식 석실이 일부 조영되기는 하나 그 수가 적으며 규격에서 벗어나 있어 중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웅진기 후반 이후 목리 · 신리 일대의 세력이 중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현지 정체성을 유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예산 서부지역 일대는 공주와 부여로부터 아산만 혹은 태안반도로 통할 수 있는 교통로로 추측되었다(정재윤 2007; 박지현 2018).

Ⅳ. 사비기 고분에 나타난 지역 집단과 중앙의 관계

1. 대규모 고분군의 형성과 능산리식 석실의 조영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웅진기부터 석축 고분 축조가 시작되어 사비기까지 이어지며, 그 결과 약 200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고분군이 형성된다. 동시기에 목리 · 신리유적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지점에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이 조성된다. 목리 · 신리유적 3-4 E지점의 횡혈식석실묘, 석곡리유적 2호분, 사리유적 1지점 1호분은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어 사비기 횡혈식석실묘로서의 유사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지만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는 피장자의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 유적 내 사비기 석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피장자의 성격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사비기 석실의 특성을 갖춘 3-4 E지점 석실들 가운데 개석이 잔존하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184호분을 중심으로 비교할 것이다.

구조에 있어서, 석곡리 2호 석실분과 사리 1지점 1호 석실분, 목리 · 신리 184호분은 모두 단면 육각형 구조를 갖고 있다. 석곡리 2호 석실분은 문주석, 문인방석, 문지방석을 갖추고 있으며 판석을 문비석으로 이용하였다. 사리 1호 석실분은 입구부가 파괴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판형 석재를 세워 조성한 문주석 1매와 문지방석 1매가 남아있어 문틀식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리 · 신리의 182호분은 문주석, 184호분은 문주석과 문인방석이 확인되어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입구시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곡리 2호분과 사리 1호분, 목리 · 신리 184호분 모두 평사천장, 문틀식 입구시설을 갖춘 사비기 횡혈식석실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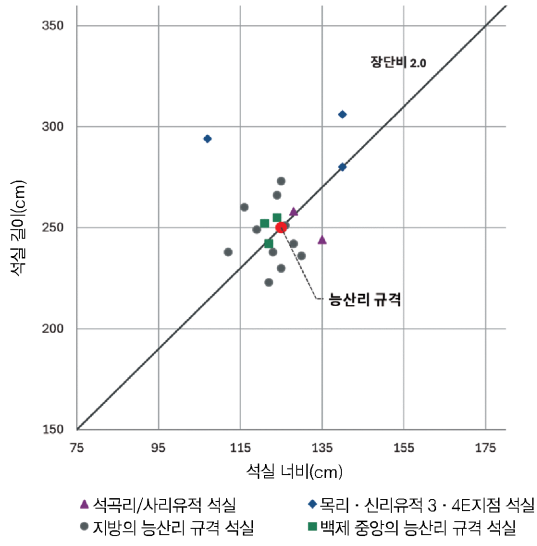
사비기 횡혈식석실묘 형식에서는 구조와 더불어 규모와 규격도 매우 중요한 분류 기준이다. 사비기가 되면 왕릉을 제외한 백제 중앙의 고분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석실이 규격화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 중앙에 위치한 능산리고분군의 석실을 기본 형태로 하는 '능산리식 석실'이 성립되고, 더불어 백제지역 내 고분이 정형화, 서열화되기 시작된다는 견해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吉井秀夫 2010: 202~204).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능산리 규격'이 제시되었다. 그 규모는 대체로 현실 길이 250cm, 너비 125cm 안팎이며, 장단비는 대략 2:1이다(山本孝文 2002).

[표 1] 주요 석실묘 구조 및 특징 일람표

	천장형태	입구시설 (현문)	평면형태 (연도 위치)	출토 유물	특징
석곡리 2호 석실분	평사천장	문주석, 문인방석, 문지방석, 문비석 (점토 밀봉)	1자형	금동이식, 관고리, 관정, 유개대부직구단경호	인골 1개체, 묘도, 배수로
사리 1호 석실분	평사천장	문주석, 문지방석	1자형 추정	관정	배수로
목리 · 신리 182호분	–	문주석	ㄱ자형 (우편재)	이식, 철겸, 미상철기, 관정	주구, 묘도
목리 · 신리 184호분	평사천장	문주석, 문인방석	甲자형 (중앙)	관정, 관고리	인골 6개체, 주구, 묘도
목리 · 신리 185호분	–	–	–	–	묘도

이러한 규격이 석재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 또한 백제 영역 내 상당히 넓은 지역까지 분포한다는 점을 미루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님이 지적되었다(山本孝文 2002: 102). 그러나 지방에서 능산리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석실이 다수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석실 가운데에서도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림 5]와 같이 능산리 규격을 중심으로 유사한 규격이 중앙과 지방에서 고루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점부터 사비기 석실에서 중앙의 석실구조와 규격을 위시한 '백제적 전형'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석곡리 2호분의 석실 크기는 258cm × 128cm, 장단비가 2.01이며, 사리 1지점 1호분은 244cm × 135cm로 장단비가 1.80이다. 석곡리 2호분은 매우 적은 오차로 능산리 규격에 부합하며, 사리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지만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3-4 E지점의 고분을 살펴보면, 182호분의 석실길이는 280cm, 184호분은 306cm, 185호분 294cm로 상당히 길다. 단, 182호분과



[그림 5] 유적별 석실 규격 분포 그래프

184호분의 경우 장단비가 약 2:1인데, 이는 능산리 규격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185호분의 장단비는 2.74로 상당히 세장한 것으로 보아, 같은 군집 내의 고분이라도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석실묘 축조 재료 및 규모 일람표

	벽석	바닥	묘광(cm) ('')는 잔존 너비)			석실(cm)			현실 장단비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높이	
석곡리 2호 석실분	판석	판석	456	336	230	258	128	142	2.01
사리 1호 석실분	판석	생토면 정지	'360'	'316'	216	244	135	120	1.80
목리 · 신리 182호분	판석	할석	520	280	125	280	140	120	2.00
목리 · 신리 184호분	판석	치석된 할석	420	272	188	306	140	150	2.18
목리 · 신리 185호분	판석	치석된 할석	354	278	86	294	107	62	2.74

석곡리 2호 석실분과 사리 1호 석실분, 목리 · 신리 고분군의 182호분, 184호분, 185호분은 모두 벽석으로 판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목리 · 신리유적의 대부분의 석축고분이 할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되는 모습이다.[6] 그런데 판석조 석실들 간에도 석재의 가공정도에 차이가 상당함은 [그림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석곡리 2호 석실분의 경우 다른 고분에 비해 사용 석재의 가공도가 매우 높다.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들어맞아 크기가 작은 판석이나 소형 할석으로 사이를 메우지 않았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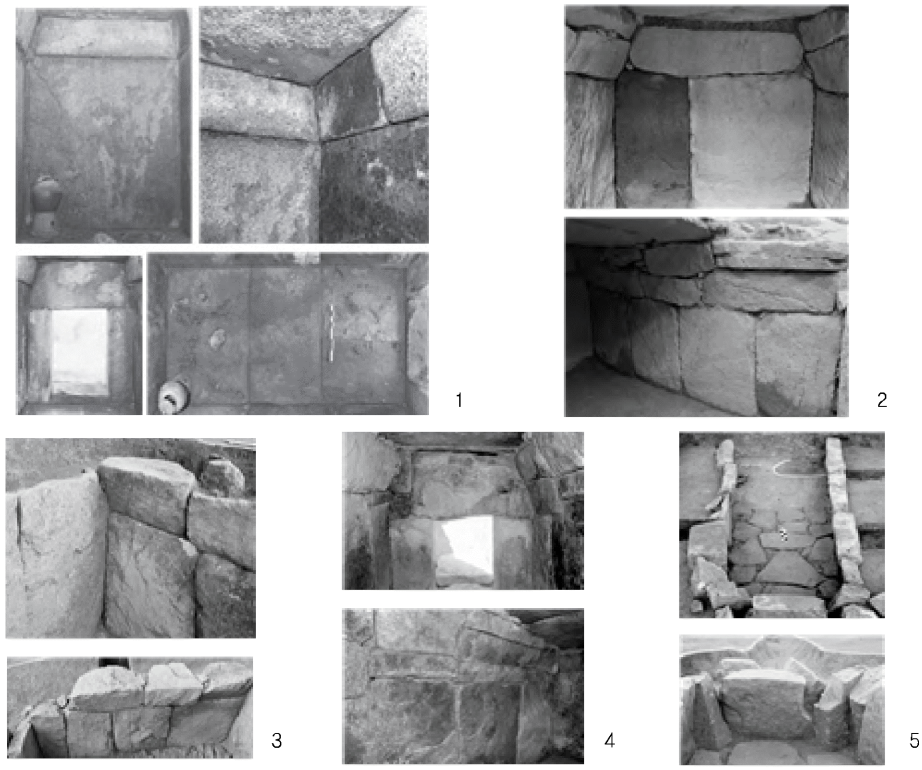
석재의 크기를 통해서도 가공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석곡리 2호분의 북단벽과 동 · 서벽은 1단의 벽석 위에 1단의 고임돌을 쌓아 만들었다. 북단벽은 높이 115cm, 너비 128cm의 판석을 세운 후 그 위로 고임돌을 얹어 세웠다. 동벽과 서벽의 경우도 하부 벽석의 높이가 115cm로 북 · 동 · 서단벽 모두 높이가 동일하다. 동벽은 너비 146cm와 106cm인 2매의 판석을, 서벽은 너비 91~118cm 가량의 3매의 판석을 연접시켜 세웠다.

184호분의 경우 북벽은 3매의 석재로 축조하였다. 서벽은 너비 20~90cm, 높이

6) 목리 · 신리유적의 백제고분 213기 가운데 157 · 159 · 182 · 184 · 185 · 188 · 추가9 · 추가10호분, 8기를 제외한 석축 고분은 모두 할석조 고분이다.

7) 이처럼 가공이 잘된 판석의 석재형태를 두고 석실 축조에 필요한 석재형태를 공유한 결과라고 추정한 견해가 있어 참조할 만하다(김동균 2022: 521).

90cm의 판석 5매로 1단을 축조하고 2단은 너비 80cm, 높이 30cm 내외의 판석 3매를 쌓았다. 동벽은 서벽과 유사하나, 총 3단으로 서벽의 윗단을 두 단으로 나누어 쌓은 형태이다. 석재의 크기가 대체로 석곡리 2호 석실분에 비해 작으며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여러 단으로 벽석을 축조한 모습이 보인다. 석곡리 2호분의 경우가 석재 가공에 더 많은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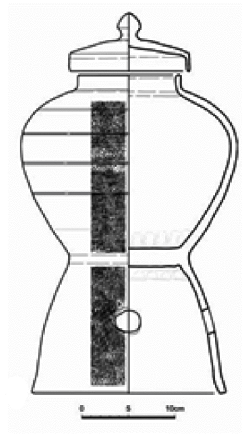
[그림 6] 석곡리, 사리, 목리 · 신리 횡혈식석실 현실 내부
(1. 석곡리 백제 2호 석실묘(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2. 사리 1지점 1호 석실분(동방문화재연구원 2021), 3. 목리 · 신리 182호분, 4. 목리 · 신리 184호분, 5. 목리 · 신리 185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석곡리유적, 사리유적과 목리 · 신리유적 3-4 E지점의 횡혈식석실묘의 주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주구의 유무이다. 석곡리유적과 사리유적의 횡혈식석실묘에서는 주구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3-4 E지점의 182 · 184호분에서는 주구가 발견된다. 주구는 충청도 일대의 지역 전통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8] 최근 호서지역

8) 부여 능산리 능안골고분군이나 염창리고분군, 합정리 문냉이골 분묘군 등 도성 인근지역에서는 고분에서 주구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서현주 2020: 159). 반면, 충청남도 일대에서는 사비기 석실묘까지 주구를 시설한 흔

에서 고분 외곽에 주구를 시설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큰 규모의 석실묘 외곽에서 주로 확인된다는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서현주 2020: 159).

석곡리 2호 석실묘의 부장품으로는 금동이식 1점과 유개대부직구단경호 1점이 석실 내 남동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석곡리 2호분의 유개대부직구단경호는 회색의 경질토기로, 臺附에 원형 투공 4개가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외면에는 전면에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문양대를 분리하여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횡침선과 파상문이 시문된 동체부는 사비기 직구호와 유사하나, 투공이 있는 대각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그림 7] 석곡리 2호분 출토 유개대부직구단경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토기와 함께 착장품도 출토되었다. 석곡리 2호분에서는 두부의 전면을 덮은 천과 전두골에 둘러진 끈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해당 끈은 베를 꼬아서 만든 '곡'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무령왕릉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이요한 2018: 202). 이마를 덮는 천에서는 매우 작은 금속편이 관찰되었는데, 분석 결과 금(Au)에 은(Ag)이 일부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9] 직금으로 된 머리장식을 착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피장자의 높은 위계를 짐작케 한다.

석곡리유적과 목리 · 신리유적 간에는 장법의 차이도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 석곡리 2호분에서는 인골과 목관재가 출토되었다. 인골은 안쪽부터 두개골, 관골, 대퇴골의 순서로 총 3점이 확인되었다. 치아분석을 통해 비교적 양호한 유소아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128). 관 부속구로는 석실묘 내부에서 관정 53점, 관고리 4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총 5편의 판형 목관재와 관의 모서리를 마감하는 마구리로 보이는 목재 1편이 중앙을 기준으로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서 확인되었는데 수종분석 결과, 비자나무로 밝혀졌다.

한 개체 분의 인골이 출토된 점과 목관재의 배치 양상으로 보아 석곡리 2호분은

적이 확인된다. 사비기 유적인 서천 추동리유적에서는 10기의 석실묘에 주구가 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9) 『舊唐書』에 따르면 관을 金花로 장식하는 것은 왕의 복식에 해당한다(『舊唐書』 東夷列傳 百濟, "其王服大袖紫袍, 青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그러나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 석실에서 금으로 된 머리장식이 출토된 바 있어 실제로 금제 장식을 사용한 것이 왕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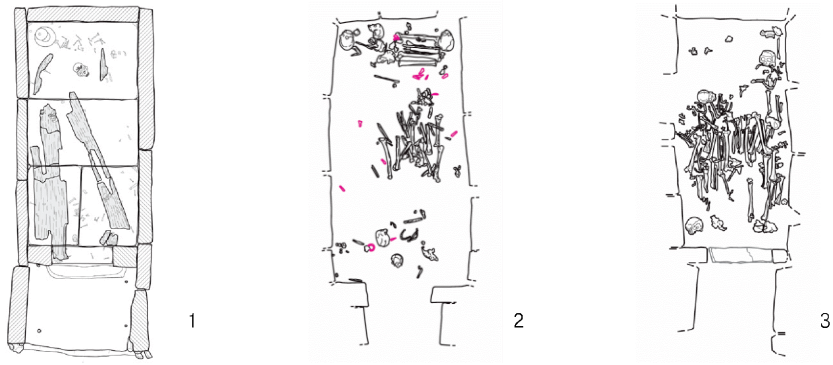
단인장으로 추정된다. 목관재가 중앙부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목관이 배치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목관 없이 이루어지는 추가장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석실 내부가 침수 피해를 입어 인골이 원위치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장 당시의 모습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목관의 흔적과 석실의 규모를 통해 볼 때 피장자는 伸展 자세로 목관에 안치되어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목관 부속구의 출토 위치와 목질흔을 검토하여 목관 형식을 복원한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이나은 2022: 141~143). 석곡리 2호분에서는 부여 능산리고분군, 익산 쌍릉 대왕묘 목관과 같이 마구리장식이 확인되며, 관재 두께가 3.4cm 내외로 두꺼운 편이고, 결구못의 개수가 60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점을 들어 왕족의 목관으로 추정되는 B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석곡리 2호분 피장자가 당시 백제 사회에서 상당히 위계가 높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는 다인장과 추가장이 확인된다. 매장이 1회 이루어진 후 추가로 매장이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구조인 수혈식 묘제와 달리, 횡혈식 묘제는 본질적으로는 추가장을 전제로 한 구조이다(권오영 2009: 15~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산리고분군의 왕릉급 고분과 능안골고분군 등 도성 인근과 외곽 지역의 주요 고분에서는 단세대의 2인 합장이 이루어지다가, 사비기 후반이 되면 횡혈식석실의 규모 축소와 함께 단인장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보인다(서현주 2020: 172). 지방에서 7세기까지 다인장과 추가장이 확인되는 것은 중앙과는 구별되는 묘장제 전통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184호분에서는 최소 6개체 분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인골은 안쪽과 중앙에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다. 인골 가운데 긴 뼈가 중앙에서는 양 측벽과 나란히, 안쪽에서는 후벽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유적 내 또 다른 인골 출토 석실인 추가고분 조사지역 9호분에서도 확인된다. 추가-9호분에서는 최소 5개체 분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인골은 석실 중앙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긴 뼈들은 양 측벽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184호분은 50세 이상의 남성 2명, 35~40세의 여성 1명, 아동 3명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가-9호분은 50~60세의 남성 2명, 42~50세의 남성 1명, 14~16세의 남성 2명과 미상인 한 명이 확인되었다.

184호분에서는 관 부속구로 관고리 2점, 관정 19점, 추가-9호분에서는 관정 23점이 출토되었다. 부식으로 인해 결실된 관정이 있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5~6개체



[그림 8] 인골 출토 고분 인골 배치 양상
(1. 석곡리 2호분(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2. 목리 · 신리 184호분, 3. 목리 · 신리 추가 9호분(충청문화재연구원 2014))

분의 목관 부속구로는 수량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인골의 배치양상을 볼 때 일정한 구역에 밀집되어 있어 5~6인을 각각 목관에 안치하여 伸展葬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인골 배치 양상을 볼 때 우선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184호분에서는 여러 개체의 두개골이 후벽 앞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추가로 매장할 때 기존의 인골을 한쪽으로 밀어 두고 새로운 인골을 안치했을 수 있다.[10] 이러한 경우, 목관을 사용한 첫 번째 차례를 제외하고는 시신 자체를 매장하기 보다는 洗骨, 즉 2차장을 하여 인골만을 안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골 과정을 거친 여러 개체 분의 인골을 목관 내지 목함에 함께 넣어 안치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인골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한 목함 내에 안치되었기 때문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84호분과 추가-9호분의 긴 뼈들이 나란히 안치된 것도 세장한 목관 내에서 세로로 안치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여러 개체 분의 인골이 담긴 목함의 경우 한 차례에 일괄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듯 인골 출토 양상을 통해 목리 · 신리유적의 일부 고분에서는 다인장이 확인

10) 추가장에 의해 기존 인골이 재배치된 사례는 다른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완주 은하리유적 석실묘에서는 4개체 분의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여러 부위의 뼈들이 뒤섞여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사체를 석실묘 내에 매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육탈이 이루어진 후 자리를 이동하여 재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이준정 외 2006: 73~76).

되며, 여러 차례 매장의례를 행하는 추가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인골이 출토되지 않은 고분 가운데에서도 2차 굴광 흔적 혹은 경사방향과 역행하는 토층을 통해 추가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고분이 있다. 3 · 47 · 63 · 185 · 188호분이 이에 해당한다.

[표 3] 목리 · 신리 추가장 · 다인장 추정 고분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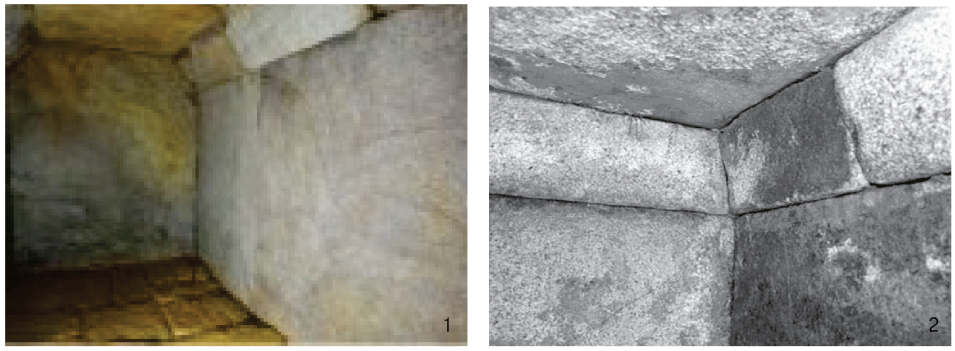
지점	유구 번호	형식	석실(곽)(cm)			벽석 석재	추가장/다인장 여부	출토 유물	특징
			길이	너비	높이				
3-2	3	횡혈식	243	130	106	할석	추가장	–	–
3-2	47	횡구식	184	70	42	할석	추가장	개, 배	–
3-2	63	횡혈식	240	142	78	할석	추가장	–	–
3-4 E	184	횡혈식	306	140	150	판석	추가장, 다인장 (6인)	관고리, 관정	인골 출토
3-4 E	185	횡혈식	294	107	62	판석	추가장	–	–
3-4 K	188	횡혈식	227	90	122	판석	추가장	관정	–
추가	5	횡혈식	252	128	126	할석	다인장	–	인골 출토
추가	9	횡혈식	232	152	158	판석	다인장 (5인), 추가장	관정	인골 출토

2. 중앙 지배력의 강화와 지역적 특색의 유지

석곡리유적, 사리유적과 목리 · 신리유적 횡혈식석실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장자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곡리 2호분과 사리 1호분의 경우 중앙에서 널리 쓰이는 능산리 규격에 부합하는 석실인데 반해, 목리 · 신리는 이보다 크기가 커 규격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다인장 전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84호분은 능산리 중앙 3호분의 크기인 288cm를 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왕릉급에 해당한다. 이는 목리 · 신리유적의 석실묘 축조에 있어 백제 중앙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모두 판석을 사용해 축조하였지만, 석곡리 2호분만이 매우 정밀하게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정연하게 가공한 대형 판석을 사용하여 석실을 축조했다는 점에서 석곡리 2호분은 목리 · 신리의 고분에 비해 축조에 더 많은 공력이 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피장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짐작케 한다. 웅진기 무덤이 구조의

차이에 기반하여 왕실과 유력세력의 무덤을 구분하였다면, 사비기에는 무덤 구조의 표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치석된 석재의 사용이 계층구분에 영향을 미쳤다(이현숙 2019: 151). [그림 9]에서와 같이 석곡리 2호분의 이러한 특징은 백제 중앙에서 확인되는 횡혈식석실묘에 비견된다.



[그림 9] 횡혈식석실 현실 내부 비교
(1. 능산리 서고분군 백제 4호분(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2. 석곡리 2호 석실분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석곡리와 목리 · 신리 횡혈식석실묘에서 확인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장법이다. 석곡리 2호분의 경우 단인장 혹은 2인 합장을 염두에 두고 축조된 고분으로, 인골 출토 양상으로 보면 실제로 단인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인장에서 합장 그리고 단인장으로 변화하는 사비기 묘장제의 경향성과도 합치한다. 반면 목리 · 신리유적 184호분에서는 6개체 분의 인골이 발견되어 3인 이상의 다인장이 확인되었으며, 추가장의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유적 내 다른 고분들에서도 다인장과 추가장이 확인되어 이러한 장법은 목리 · 신리유적 축조 집단 내에서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인 이상의 개체가 합장되는 현상은 도성 인근지역에 비해 외곽지역과 지방에서 빈번하게 보인다(서현주 2020: 165). 따라서 목리 · 신리유적의 석실묘에서 확인되는 장법 또한 중앙과는 구별되는 지방 특유 장법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11)]

이러한 차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유적의 피장자의 성격은 상당히 달랐던 것으

11) 추가장과 다인장의 사례는 충남 당진지역의 채운동, 우두동유적에서도 확인된다. 당진 일대에서는 사망한 피장자를 곧바로 매장주체부에 안치하기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육탈된 인골을 옮겨 와 집골하거나 재배치하는 2차장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최정범 2024: 106~111).

로 보인다. 두 유적의 석실에서 보이는 차이는 중앙과의 관련성 정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12] 석곡리유적의 경우 규격화된 석실과, 치석된 석재 등을 통해 중앙과의 깊은 관련성이 상정된다. 특히 석실의 정교함으로 보아 중앙으로부터 온 고분 조영 전문 기술자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13] 또한 목관의 형태와 착장 유물을 통해 피장자가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인물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리유적 횡혈식석실묘의 피장자는 석곡리유적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석곡리유적을 조영한 집단과 같은 집단, 혹은 깊은 관련이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석실 단면 형태가 육각형일 뿐만 아니라, 평면형태도 석곡리 2호분과 유사하다. 그러나 석실 축조 석재가 석곡리에 비해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석곡리 2호분과 동일하게 중앙과의 친연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사리유적의 석실묘에 나타나는 구조와 형식은 중앙과의 관련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석곡리 2호분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사리유적 피장자는 석곡리유적의 피장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집단에 속한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웅진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금학동식 석실과 같은 권역 내에 대규모 고분군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웅진기 후반부터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해 온 집단에 의해 형성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3-4 E지점의 184호분은 그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평사천장, 문틀식 석실 구조와 토기 부장이 소멸하는 점 등 사비기 횡혈식석실묘의 특징을 대체로 수용하였지만, 다인장을 하는 장제는 유지되었다. 또한 석실 규모가 상당히 크며, 주구를 시설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3-4 E지점의 횡혈식석실묘가 조영되는 시점에 목리 · 신리고분군의 피장자는 토착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면서도 횡혈식석실묘 양식을 수용하여 축조할 역량이 있는 지역 집단에 소속된 인물로 보인다.

그간 사비기 횡혈식석실묘는 지배계층의 무덤이자,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해되어 왔다. 또한 횡혈식석실묘의 확산, 축조 현상은 백제 중

12)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백제 사회 내부에서의 관등이나 지방통치체제 상의 위계 차이로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형성과 석재 가공도로 보아 보다 높은 위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곡리 고분군의 경우 과거 今勿縣으로 편제된 영역에 위치하고, 목리 · 신리 고분군의 경우 馬尸山郡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즉 군현간의 위계와 석실에서 보이는 위계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13) 정교하고 정형화된 석실의 축조 시 중앙에서 기술자들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山本孝文 2007: 3~4).

앙의 지배력 확대와 연결지어 해석되었다(이남석 1995: 466~467; 吉井秀夫 1997: 187; 山本孝文 2006: 98; 김낙중 2024: 15). 예산 서부지역의 각 고분군 축조 집단 또한 해당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지배집단임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사비기의 지역 지배집단으로는 우선 지방관, 즉 백제 중앙에 의해 임명된 官人이 있다. 사비기에는 方-郡-城制의 시행으로 전국이 5방 37군 200성으로 편제된다.[14] 方에는 方領 1인, 郡에는 郡將 3인이 있었으며, 여러 城이 方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때 방령은 達率, 군장 3인은 德率이 임명되었다고 한다.[15] 또한 방령을 方佐가 보좌하며, 方마다 6 · 7~10개의 군이 배속되어 있었으며, 郡縣에는 道使(城主)가 파견되었다.[16] 이처럼 각 행정단위에 지방관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횡혈식석실의 피장자 유형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관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자료는 중앙과 지방의 석실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이다. 『隋書』에 따르면 奈率 이상의 관료는 은화로 장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7] 따라서 은화관식의 출토는 피장자의 관료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은화관식은 지방에서는 능산리식 석실에서 출토되는 빈도가 높아 능산리식 석실 피장자의 정치적 위계를 짐작하게 한다(권오영 2007: 281). 지방에서 출토되는 경우 백제 중앙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논산 육곡리 7호분은 능산리식 석실로 내부에서 은화관식이 출토되었다(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남원 초촌리고분군에서도 은화관식의 출토가 확인되었다(이문형 2025). 이러한 경우 토착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백제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歸葬되었을 가능성, 또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해당 지역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능산리식 석실이 아닌 지역색이 강한 고분에서 출토된

14) 『北史』 列傳 百濟,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三人, 以德率爲之. 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 人庶及餘小城, 咸分隸焉." ;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20年, "國本有五部三十七郡二百城七十六萬戶."

15) 『周書』 異域傳上 百濟, "都下有萬家, 分爲五部, 曰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 統兵五百人. 五方各有方領一人, 以達率爲之, 郡將三人, 以德率爲之. 方統兵一千二百人以下, 七百人以上. 城之內外民庶及餘小城, 咸分隸焉."

16) 『隋書』 東夷列傳 百濟, "五方各有方領一人,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 ; 『翰苑』 蕃夷部 百濟, "又有五方, 若中夏之都督, 方皆達率領之. 每方管郡多者至十, 小者六七, 郡將, 皆恩率爲之. 郡縣置道使, 亦名城主."

17) 『隋書』 東夷列傳 百濟, "官有十六品長曰左平. 次大率, 次恩率, 次德率, 次杆率, 次奈率, 次將德, 服紫帶, 次施德, 皂帶, 次固德, 赤帶, 次李德, 靑帶, 次對德以下, 皆黃帶, 次文督, 次武督, 次佐軍, 次振武, 次剋虜, 皆用白帶. 其冠制並同. 唯奈率以上飾以銀花. 長史三年一交代. 畿內爲五部, 部有五巷, 士人居焉. 五方各有方領一人, 方佐貳之. 方有十郡, 郡有將."

사례도 존재한다. 나주 복암리 3호분 5 · 16호 석실에서 은화관식이 그 사례이다(전남대학교박물관 2001). 그러나 나주 복암리 3호분은 묘역 조성의 지속성이 확인되며, 석실이 백제식으로 바뀐 이후에도 구조와 묘장제에서 지역색을 여전히 유지하였다(김낙중 2009a: 158). 따라서 나주 복암리 지역의 경우 토착세력이 관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다(김낙중 2009b: 102~103; 오동선 2019: 231).

이에 따라 지방의 횡혈식석실묘 피장자가 관인일 경우,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토착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백제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歸葬되었을 수 있다.[18] 또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任地에서 매장되었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토착 기반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백제 중앙에 의해 지방관으로 임명된 후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19] 사비기 백제의 지방지배에 있어 지역에 따른 세부적 차이를 인정하며, 토착적 전통이 강한 지역 수장 세력을 통치체제 내에 편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견해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최영은 2026: 71).

또 다른 지역 지배 집단으로는 현지 기반을 가진 지역 토착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지역에 존속하면서 토착적 기반을 형성한 세력으로,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세력이다. 파견된 지방관이 현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집단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군현제가 시행되어도 지방의 독자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김영심 2018: 100). 따라서 국가 권력이 일반 民에게 관철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 현지의 유력자와 협력관계를 맺어 지방지배에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홍승우 2009: 229; 김영심 2015: 31).

목리 · 신리유적과 석곡리유적의 횡혈식석실묘 피장자가 속한 집단은 위의 유형과 같은 집단과 연결될 것이다.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 집단은 사비기 횡혈식석실묘의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지의 매장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출신으로서 지방관에 협력하여 지방지배에 기여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역색을 유지하면서 지역 기반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은 백

18) 고대사회에서 歸葬이 보편적이었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김영심 1990: 95). 마찬가지로 귀장되었을 가능성과 어떠한 이유로 귀장이 불가능한 경우 任地埋葬되었을 가능성을 둘 다 제시한 연구가 있다(山本孝文 2007: 6). 또한 지방에서 출토된 금동관 부장 피장자를 해당 지방 출신으로서 중앙귀족으로 활동하다가 사후 자신의 인적 기반이 있는 곳에 귀장된 귀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2018: 204).

19) 이러한 지역 토착세력의 官人化 가능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권오영 2007: 286; 이한상 2009: 212~227; 강종원 2012: 369~373; 최미경 2020; 허윤영 2025: 137).

제 사비기까지 여전히 지방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덤의 규모 차이는 피장자의 신분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山本孝文 2006: 99), 중앙의 것보다 큰 고분이 여러 기 존재하는 점에서도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들이 백제의 통치체제에 관료로서 직접적으로 편입되지는 않았었다는 근거가 된다.

석곡리유적은 소규모 고분군으로 고분군의 연속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한 토착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석곡리유적의 석실묘의 경우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으며, 석재 가공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고분 조영에 백제 중앙의 관여가 있었을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서부지역 내에서 지방지배와 관련된 관료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토착적 기반이 보이지 않는 소규모 고분군 내에 백제 중앙 형식의 석실이 조영되는 현상은 백제가 지방지배력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거점에 백제와 친연성이 강한 세력을 파견했던 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완주, 함평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백제 지방 곳곳에 파견된 관료적 성격의 인물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20]

그렇다면 사비기에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 이러한 지배의 강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비기는 방-군-성제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지배체제가 정비되는 시기이다. 사비 천도 시기인 6세기 전 · 중반 백제는 체제 정비 과정을 거치며,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예산 서부지역에는 西方 하에 馬尸山郡과 今勿縣이 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1]

또한 사비기 백제의 국경 문제로 인한 충남 내륙 지역의 정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왕 28년(550) 백제가 故土 회복을 위해 고구려의 道薩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22] 이에 고구려가 백제 金峴城을 공격하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여 두

---

20) 완주 둔산리 석실묘는 길이 251cm, 너비 126cm, 장단비 1.99로 상당히 높은 규격성을 가지며 판석으로 축소되었다(국립전주박물관 2000). 함평 신덕 2호분 또한 길이 250cm, 너비 125cm, 장단비 2.0으로 규격성이 높으며 판석으로 축조되었다(국립광주박물관 2021). 두 고분 모두 대규모 고분군 내에 조영된 것이 아니라, 1~2기의 고분과 함께 조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능산리 규격을 갖춘 석실의 피장자는 백제 중앙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山本孝文 2007: 13~14). 특히, 함평 신덕 2호분의 피장자는 백제 중앙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산강 유역권에 대한 지역지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김낙중 2021b: 20).

21) 西方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대체로 충남의 서북부 일원으로 비정되고 있다. 제시된 견해로는 예산 대흥 지역(박현숙 1997; 서정석 2000; 지원구 2018), 홍성지역(김영관 2012), 서산지역(김영심 1997; 김근영 2021; 장미애 2021; 강유나 2025) 등이 있다.

22)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聖王 28年, "二十八年, 春五月, 王遣將軍達己, 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성을 빼앗았다.[23] 도살성은 충북 증평군,[24] 금현성은 충북 진천군으로 추정된다.[25]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6세기 이후 백제 중앙의 입장에서 충청남도 일대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이전에 비해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산만 수계권에 1군 3성 편제를 배치한 것 또한 방어 체계 구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유나 2026: 270~271). 이는 천안, 아산, 예산 등 국경과 접한 인근지역 전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 속에서도 7세기 대에 예산 서부지역에 지방지배 강화가 확인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산 서부지역에는 6~7세기 대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마애불이 조성되었다.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태안의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서산의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같은 마애불은 충청남도 내포 일대의 특수한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주목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은 백제의 유일한 사면석불로, 예산 서부지역에 위치한다. 이를 교통로와 연결지어, 예산 서부지역 또한 웅진기부터 교통로 상 중요한 지역으로 역할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정재윤 2007; 신소연 2015; 박지현 2018; 소현숙 2019). 예산 일대에 이러한 종교 시설의 존재는 대중항로와 관련된 교통로와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특히 북조와 활발히 교류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6]

이러한 석불이 백제 중앙 형식 석실인 예산 석곡리 2호분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석불 조영을 위해서는 돌을 가공하는 기술자의 존재가 상정되며 이러한 기술자는 중앙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높다.[27] 또한 대형 석불

---

23)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第七 陽原王 6年, "三月, 攻百濟金峴城, 新羅人乘間取二城."

24) 도살성의 위치를 충남 천안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1977), 충북 증평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민덕식 1983; 양기석 1991)가 있다. 그중에서도 道薩城과 『三國史記』 地理志에 기록된 道西縣이 통한다는 점에서, 증평군 도안면으로 비정되는 道西縣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5) 금현성의 위치를 세종시 전의면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1977; 전덕재 2018), 세종시 전동면으로 보는 견해(양기석 1991), 충북 진천군 일대로 보는 견해(민덕식 1983)가 있다. 당시 신라가 진천 지역을 영역화한 것은 분명하지만, 세종시 전의 지역을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금현성은 진천 지역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박성현 2011).

26) 실제로 위덕왕대를 기점으로 대중 교류의 기조가 남조 일변도에서 남북조 양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된다. 『三國史記』에 기록된 무령왕에서 성왕대까지 백제의 대중 교류 기사는 모두 남조 梁과의 조공 책봉 기사이다. 그런데 위덕왕대에 들어서 백제는 남조의 陳과 북조의 齊 그리고 周와 동시에 교류한다.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 第5 威德王). 이는 589년 수나라가 진나라를 통일하기까지 혼란스러웠던 중국 정세에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충남에 분포하는 석불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석공들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강우방 1997: 170; 진정환 2007: 482).

조영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도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6~7세기 대에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진 사면석불 조영은 중앙의 기술과 현지의 자원이 더해져 이루어진 공공사업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중앙과의 친연성이 깊은 예산 석곡리 고분군 축조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백제 중앙이 이 일대의 관리와 지배력 강화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서 보이는 웅진기 이후의 횡혈식석실의 축조와 사비기 석실의 등장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28] 백제는 사비기가 되어 지방지배 체제를 정비하고, 충청남도 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백제는 중앙과 친연성이 강한 집단을 지방에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세력과 협력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지방지배에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거리를 두고 거점을 형성하여 공존하는 예산지역의 양상은 사비기 지방 지배의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사비기에 횡혈식석실묘는 재래의 묘제를 대체하며 백제 지방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 가운데 정형화된 형식의 능산리식 석실의 전국적 분포는 사비기 백제의 지방지배 확대 양상과 연결되는 현상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예산 서부지역 일대 고분군의 횡혈식석실묘 분석을 통해 지역 집단의 존재 양상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지방지배 강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백제 사비기 예산 서부지역의 위상 변화와 연관지어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는 한성기까지 분묘유적이나 주거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집단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웅진기부터 석축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지역 집단의 등장과 성장이 확인된다. 웅진기 형식 부장품과 석실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웅진기 후반이 되면 백제 귀족의 무덤 형식에 해당하는 금학동식 석실이 축조되는 것을 통해, 목리 · 신리유적 석실의 피장자는 지방세력으로서 웅진

28) 이와 관련하여 신의도 상서고분군의 축조 기간이 서남해 도서지역에 설치된 郡縣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간 7세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문안식 2014: 102~103). 또한 남해안 지역에 조영된 사비기 석실을 두고 연안항로 상에 위치하는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김낙중 2016: 87~88).

기부터 백제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지역 집단으로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에서 석축고분의 축조는 사비기까지 이어져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한다. 또한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교한 능산리식 석실인 석곡리 2호분이 축조된다. 석곡리유적의 경우 규격화된 석실과, 치석된 석재로 축조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높은 위계를 보여주는 목관과 착장 유물이 확인된다. 목리 · 신리유적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해 온 집단에 의해 형성된 유적이며, 토착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다인장 · 추가장이 확인된다.

두 유적의 석실묘에서 고분 조영 양상과 묘장제에 있어 나타나는 차이는 중앙과의 관련성 정도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석곡리유적의 피장자가 속한 집단은 해당 지역보다도 백제 중앙과 깊은 친연성을 가졌으며, 또한 예산 서부지역 내에서 지방지배와 관련된 관료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목리 · 신리유적의 피장자 집단은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지의 매장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병존을 통해 중간적 인물, 즉 현지 출신으로서 지방관에 협력하여 지방지배에 기여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산 서부지역 내에는 두 가지 다른 성격을 갖는 집단이 동시기에 존재했다. 백제는 지방지배에 있어 지방세력과 협력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앙과 친연성이 높은 집단을 지방에 파견하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비기에 예산 서부지역 일대에 이러한 지배의 강화가 이루어진 것은, 지방지배체제의 정비, 국경 문제, 교통로로서의 중요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은 예산 서부지역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사비기 백제의 지방지배 강화가 실제 지방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피장자의 성격을 백제 중앙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를 지방지배와 연결지어 보았다. 한 지역 내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두 집단이 거리를 두고 존재하며 지방지배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예산 서부지역의 사례는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백제 사비기 지방지배에 있어 복합적인 통치 방식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6. 8. 25 | **심사완료일** 2026. 9. 19 | **게재확정일** 2026. 10. 1

참고문헌

『三國史記』『周書』『北史』『隋書』『舊唐書』『翰苑』

가경고고학연구소, 2017, 『예산지역 백제한성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강연준, 2024, 「백제 사비기 금물현 지역의 고대사회와 예산 사면석불의 조영」,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우방, 1997, 「泰安白華山의 磨崖觀音三尊佛攷」,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강원표, 2021, 「목관 부속금구를 통한 백제 송산리고분군의 위계성 분석」, 『호서고고학』 49, 호서고고학회.

강유나, 2025, 「百濟 西方 硏究 -地域史 硏究를 위한 試論-」,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6, 「백제 사비기 충남 서북부 지역의 군 · 성 편제와 그 특징」, 『백제학보』 56, 백제학회.

강종원, 2012,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서경문화사.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20, 『예산 석곡리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公州)山儀里遺蹟』.

국립광주박물관, 2021, 『咸平 禮德里 新德古墳』.

국립전주박물관, 2000, 『完州 花山里 石室墳 移轉 · 復原 報告』.

권오영, 2007, 「고고자료로 본 지방사회」,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

_____, 2009, 「고구려 횡혈식석실분의 매장 프로세스」,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吉井秀夫, 1997, 「橫穴式石室墳의 受容樣相으로 본 百濟의 中央과 지방」,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10, 『古代朝鮮墳墓にみる国家形成』, 京都大学学術出版会.

김근영, 2021, 「백제 서방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103, 한국고대사학회.

김낙중, 2009a, 「백제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확산 및 지역성의 유지 –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71, 한국고고학회.

_____, 2009b, 「榮山江流域政治體와 百濟王權의 關係變化 -金屬製服飾遺物을 中心으로-」, 『백제연구』 5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16, 「서남해안 일대의 백제 해상교통로와 기항지 검토」, 『백제학보』 16, 백제학회.

_____, 2018, 「남원지역 고분군의 성격과 보존 및 활용 방안」,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1-2.

_____, 2021a, 『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_____, 2021b, 「함평 신덕 1 · 2호분의 분구와 석실」, 『咸平 禮德里 新德古墳 -논고-』.

_____, 2024, 「백제 고분 연구의 쟁점과 향후과제」, 『백제 고분 연구의 쟁점과 향후과제』, 한성백제박물관.

김동찬, 2022, 「사비기 횡혈식석실의 매장 프로세스 검토」, 『한국고고학보』 123, 한국고고학회.

김영관, 2012, 「백제 부흥운동기 흥성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1-47,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김영심,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한국사론』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硏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5, 「백제의 지방 통치기구와 지배의 양상 -「陳法子墓誌銘」과 나주 복암리 목간을 통한 접근-」, 『한국고대사탐구』 19, 한국고대사탐구학회.

_____, 2018, 「백제 웅진시기 지방통치의 구상과 운영의 실체」, 『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통치』, 한성백제박물관.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동방문화재연구원, 2021, 『禮山 四里 遺蹟』.
문안식, 2014, 「백제의 해상활동과 신의도 상서고분의 축조 배경」, 『백제문화』 5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민덕식, 1983, 「高句麗의 道西縣城考」, 『사학연구』 36, 한국사학회.
박성현, 2011, 「5~6세기 고구려 · 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한국역사연구회.
박신영 · 성정용, 2020, 「河南 甘一洞 古墳群의 石室構造와 被葬者集團의 性格」, 『고고학』 19-1, 중부고고학회.
박지현, 2018, 「백제의 대중국 교류길과 마애불의 조영」, 『충청남도의 백제유적』,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박현숙,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論山 六谷里 百濟古墳 發掘調査報告書 -1986年度 發掘調査-』.
_____, 1995, 『益山 笠浦里 百濟古墳群 : 1992, 1993年度 發掘調査』.
山本孝文, 2002, 「百濟 泗沘期 石室墳의 階層性과 政治制度」, 『한국고고학보』 47, 한국고고학회.
_____, 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문화사.
_____, 2007, 「百濟 泗沘期 石室의 設計와 構造系統論」, 『한국고고학보』 63, 한국고고학회.
서정석, 2000, 「百濟 5方城의 位置에 대한 試考」, 『호서고고학』 3, 호서고고학회.
_____, 2023, 「禮山 石谷里 古墳群과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 양태」, 『역사와 담론』 108, 호서사학회.
서현주, 2020, 「백제 사비기 호서지역 고분과 매장의례」, 『선사와 고대』 64, 한국고대학회.
소현숙, 2019, 「禮山 四面石佛의 제작 時期와 性格, 그리고 百濟의 對中交涉 -四面像의 형식과 착의법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 26, 동악미술사학회.
신소연, 2015, 「한국 삼국시대의 불상」, 『고대불교조각대전』, 국립중앙박물관.
심정보 · 유원재 · 이달훈 · 서오선 · 서태일 · 이정우 · 강희천 · 공석구, 1984, 「禮山郡管內 古代山城 分布調査報告」, 『백제연구』 1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양기석, 1991,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 · 12 · 13, 한국문화사학회.
오동선, 2019, 「영산강유역권 사비기 석실의 변천과 의미」, 『한국고고학보』 112, 한국고고학회.
_____, 2024, 「웅진기 왕릉과 귀족묘의 구조 변천과 규제 양상」, 『한국고대사연구』 115, 한국고대사학회.
이나은, 2022, 「백제 사비기 목관과 부속구의 변천과 위계」, 『한국고고학보』 122, 한국고고학회.
이남석, 1995, 『百濟 石室墳 硏究』, 학연문화사.
이문형, 2025, 「남원 초촌리 고분군의 축조 연대와 그 성격」, 『호남고고학』 79, 호남고고학회.
이병도, 1977,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이요한, 2018, 「예산 석곡리 유적」, 『한국고고학저널』,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이준정 · 김종일 · 최철희 · 한영희 · 이세민 · 조유복 · 하대룡 · 김상인 · 김승옥 · 이승태, 2006, 「DNA 분석을 통한 백제 葬法의 연구 -완주 은하리 고분 출토 인골의 예-」, 『한국고고학보』 61, 한국고고학회.
이한상, 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이혁희, 2017, 「홍성 신금성의 구조와 성격 재검토」, 『야외고고학』 30, 한국문화유산협회.
이현숙, 2019, 「백제 사비기 횡혈식석실묘의 판석재 도입과 치석기술에 반영된 계층화」, 『백제 건축 치석과 결구를 보다』, 서경문화사.
장미애, 2021, 「백제 5方의 성격과 설치 시점 논의 -『括地志』를 바탕으로-」, 『중원문화연구』 29,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박물관, 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發掘調査報告書』.
전덕재, 2018,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남원시 초촌리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_____, 2013, 『永元 隱仙里 一元 百濟 古墳群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전주대학교박물관, 2024, 『2024년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시 ·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정은우, 2005, 「예산 사면석불의 미술사적 검토」, 『백제문화』 3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정재윤, 2007, 「禮山 四面石佛의 조성 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 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지원구, 2018, 「百濟 西方城의 位置와 性格」, 『백제문화』 5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진정환, 2007, 「井邑地域 百濟系 佛像 考察」, 『문화사학』, 한국문화사학회.
최미경, 2020, 「사비시기 백제의 영산강유역 지배와 南方城」, 『한국고대사탐구』.
최병화, 2017, 「禮山地域 山城現況과 地域性」, 『예산지역 백제시대 산성연구: 예산지역 백제산성 학술대회 자료집』, 가경고고학연구소.
최영은, 2026, 「고대 영산강유역권 지역 수장(首長)의 성격에 대한 시론」, 『인문논총』 83-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최정범, 2024, 「忠南 唐津 人骨 出土 泗沘期 百濟古墳의 再認識」, 『야외고고학』 49, 한국문화유산협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瑞山 富長里遺蹟』.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舒川 楸洞里 遺蹟 : I 地域』.
_____, 2010, 『서산 언암리 낫머리 유적』.
_____, 2014, 『禮山 沐里 · 新里 遺蹟』.
土田純子, 2014, 『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研究』, 서경문화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부여 능산리고분군 Ⅱ (서고분군) : 제5~7차 발굴조사』.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홍성 석택리유적』.
허윤영, 2025, 「순화리 석실분의 조사성과와 백제 사비기 순창지역의 위상」, 『백제학보』 52, 백제학회.
홍승우, 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4, 한국고대사학회.

http://doi.org/10.20292/jcich.2026.51.75

Local Groups in the Yesan Region during the Ungjin and Sabi Periods of Baekje:

Relations with the Central Authority

Hwang-Bo, Eun(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Sabi period, local burial practices in Baekje were replaced by stone-chamber tombs that mirrored the burial forms of the central elite, undergoing processes of standardization and formalization. The extent to which local groups faithfully adopted burial forms originating from the capital likely reflects the closenes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Baekje central authority.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stone-chamber tombs in the western Yesan reg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ature of local groups in the area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Baekje state center.

Local groups in the western Yesan region can be identified from the Ungjin period onward. At the Mok-ri and Sin-ri sites, stone chambers of the Geumhak-dong type—burial forms associated with Ungjin-period elites-have been documented. This suggests that the groups interred in these stone-chamber tombs maintained close ties with the Baekje center and developed as local elites.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Chungcheongnam-do region following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to Ungjin is presumed to have contributed to this development.

The construction of stone-built tombs at the Mok-ri and Sin-ri sites continued into the Sabi period, forming a large-scale burial complex. At the same time, Tomb No. 2 at the Seokgok-ri site—characterized by a refined Neungsan-ri－type stone chamber-was constructed separately from the Mok-ri and Sin-ri sites. At Mok-ri and Sin-ri,

burial customs that appear to preserve indigenous traditions are evident, indicating that the burial complex was formed by a group that maintained its power locally over a relatively long period. In contrast, the Seokgok-ri site lacks continuity in burial construction, and its tomb form closely resembles the burial practices of the central Baekje elite.

The group interred at the Mok-ri and Sin-ri sites appears to have adopted the structural elements of Sabi-period stone-chamber tombs while partially maintaining local burial traditions. This suggests that they may have been intermediary actors—local elites who cooperated with provincial administrators and contributed to regional governance. Conversely, the group associated with the Seokgok-ri site, which constructed standardized stone chamber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Baekje center, may have been a bureaucratic group newly deployed to the region by the central author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wo groups with differing characteristics coexisted contemporaneously within the western Yesan region.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a dual system of local governance operated during the Sabi period of Baekje.

Key words : Baekje, Sabi Period, Yesan, Local Governance, Stone-Chamber Tombs, Neungsan-ri–Type Stone Chambers